

황령산지킴이범시민운동본부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황령산지킴이범시민운동본부

(공동사무국 : 부산경실련,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담 당 : 이보름(010-4521-7949) 공동사무국장

날 짜 : 2025년 04월10일(목)

제 목 :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의 전파방해 우려에 대한 입장문

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하다.

-시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부산시는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에 책임을
다하라!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전망 타워는 높이 116m로 지난 2023년 공개된 환경영향평
가서(초)에 봉수전망대 남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남구와 영도구 일원에 전파 간섭이 예
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3사(KBS부산, 부산MBC, KNN)는 전파 방해가 우려된다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청하였다. 민간사업자는 전파방해 우려에 대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황령산지킴이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시민의 방송 시
청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전파방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
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방송 3사(KBS부산, 부산MBC, KNN)에 전파방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전달하였고 3월 28일까지 모두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방송3사는 공통적으로 전파방해 문제가 있다면 전파방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다. 특히 KBS부산과 부산MBC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대책이 전파방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 협조가 불가능하며, 기술적 검증과 실효성 있는
해결 없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송3사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표-1> 방송3사 답변 요지

| | |
|---------------------|---|
| <p>KBS부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자가 최초 부산시에 제출한 실시계획인가 서류상, 전망대 높이 약 120m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송신 철탑보다 높아 전파 송출에 물리적 방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2023년 외부 용역(민간사업자, 방송 3사, 한국해양대 공동)의 결과에서도 남구 및 영도구 지역에 광범위한 전파방해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 • 따라서 KBS부산은 “전파 방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공공의 시청권 문제”로 보고 있으며, 전파방해 해결 없이 사업 인가에 협조할 수 없고, 기술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임 |
| <p>부산MBC</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안(116m) 기준으로도 남구와 영도구 동삼동 일대에서 전파 간섭이 예상됨 • 이에 사업자 측에 전파 방해 해소 대책 마련 및 검증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식 요청한 상태임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무관하게, 전파 방해가 해소되지 않은 세부 계획안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근본적 대책 없이는 사업 진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
| <p>KNN</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준으로는 KNN 자체 전파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의 시설 변경 발생 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요청하여 확인할 계획 • 전파간섭 문제가 있다면 전파간섭 해소를 요청할 계획 |

최근 민간사업자 측은 전파방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전망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단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수준의 설명일 뿐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는 ‘합의’만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해선 안된다. 방송사들 역시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 검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시가 단순히 협의 완료 여부만을 근거로 인가를 검토한다면 공공의 권리인 시청권을 도외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부산시는 그간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을 관광효과, 경제성,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해 왔다. 하지만 봉수전망대 높이를 낮춘다면 전망대 기능 축소로 관광객 수요 추정과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당초 기대했던 관광 유발 효과는 가능한지,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분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산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파방해 문제의 해소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말로 갈음할 수 없다. ‘검증과 공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전망대 높이 조정 등 대책은 전문기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며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황령산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자 공공재이며 방송 전파 역시 시민의 권리이다. 객관적 검증 없는 합의, 효과 재검토 없는 변경안, 그리고 시민에게 비공개된 행정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전파방해뿐 아니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시민의견 수렴 부족 등 다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업은 더이상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첨부 : 방송3사 답변서 전문

황령산지킴이범시민운동본부

[첨부-방송3사 답변서 전문]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에 따른 방송 송신탑 전파방해 문제에
대한 공개 질의에 대한 방송 3사 답변 결과

1.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진행될 경우, 귀 방송사의 전파 송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 | |
|-------|---|
| KBS부산 | <p>민간 사업자 측에서 부산시에 최초로 제출한 실시계획인가 제출 서류를 보면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의 높이는 약 120m로 방송사의 전파를 송출하는 송신철탑 보다 더 높게 설계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망대가 부산 남구와 영도구 지역에 광범위한 전파 방해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 민간사업자, 방송3사 한국해양대 외부용역 결과)</p> <p>이후 <u>KBS부산총국은 전파 방해의 경우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공공의 방송 시·청취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파 방해 문제 해결 없이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협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u>하고 있습니다.</p> |
| 부산MBC | <p>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가 기존 안(116m)으로 조성될 경우, 남구 일원과 영도구 동삼동 일원의 전파방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u>사업자 측에 전파방해 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청</u>하였습니다.</p> |
| KNN | <p>방송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KNN의 경우 실무협의회(방송사3사 및 사업자 협의회)의 연구용역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준 <u>전파 간섭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u>됩니다.</p> |

2. 현재 민간사업자 측에서 전망대 높이를 낮추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시청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민간사업자 측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검증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 방송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
|-------|--|
| KBS부산 | <p>KBS부산총국은 시민들의 방송 시·청취권 보장을 중요한 공익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전파장애 해결 대책이 전파 혼신이나, 전파 음영 지역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u>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u>하다는 것이 KBS의 기본 입장입니다.</p> |
| 부산MBC | <p>질문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시청권 침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 측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검증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u>현재 사업자 측에 전망대 높이를 낮추는 변경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u>한 상태입니다.</p> |

| | |
|-----|--|
| KNN | 전파간섭 영향 분석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자의 시설 변경사항 발생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요청하여 확인할 계획입니다. |
|-----|--|

3. 현재 민간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대책들이 송신탑 전파방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귀 방송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
|-------|---|
| KBS부산 | KBS부산총국은 민간사업자의 대책이 전파 방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설계변경을 비롯한 사업 계획의 전면 재검토 또는 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
| 부산MBC |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과는 별개로, 송신탑 전파방해 문제 해소를 담보할 수 없는 세부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 KNN | KNN의 경우 현재 전파간섭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전파간섭 문제가 있다면 전파간섭 해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황령산지키키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산스님 · 안도스님 · 오문범 · 유진철